

우리 모임에선

불다클럽 국난극복법회

불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홍재만)은 25일 제주 오리엔탈호텔 2층연회장에서 중원스님(관음사주지) 신구법제주지사 유근민전지사 고봉식제주관광전문대학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난극복과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총재한희장은 "우리 모두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서로 배교하고 질서와 법도를 따르며 참고 용서하는 불교정신으로 하나가 되자"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진관스님 출소법회

서울구치소 불심회(회장 임장수)는 9일 오후 4시 조계종총무원 1층법당에서 진관스님 출소회향법회를 개최한다.

설조스님(불국사주지)이 법문을 할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교정인불자연합 경기지부회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진관스님은 이날 참석하는 사부대중들에게 친필 학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0343)23-6107

세무사불자회 초파일 특강

세무사불자회(회장 송호승)는 8일 오후 7시 서초동 마하연포교당에서 초파일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세운길(동국대 불교학과)교수가 '불교유식학'을 주제로 강의한다.

한편 세무사불자회는 15일 국세청보리회와 철보사에서 공동법회를 가졌다. '상호업무를 유기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합동법회는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불재자로서의 의무를 다졌다. 두 단체는 앞으로 합동법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 (02) 585-3577

국립의료원 아기부처 봉안

국립의료원 불교법당법우회(회장 정영희)는 28일 4층 당요교실에서 임원환자 자원봉사자 불교 자원봉사연합회 합참단원들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으로 장식한 아기부처님을 봉안하고 봉축법요식을 가졌다.

이날 법요식에서 지도법사 해인스님은 "부처님처럼 우리가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 함께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며 "어려울수록 성숙되는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한 보살행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영매기자=이희명희)

불광사 거사림 노인잔치

칠곡 불광사거사림회(회장 이봉광)는 4월 26일 부처님오신날 봉축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했다. 거사림회는 이날 관내 경로당과 양로원등에 거주하는 5백여명의 노인들을 초청 음식을 공양하고 영주 수건등 선물을 보냈다.

영·호남 '화합의 전파' 띄운다

KBS 불지방송인 10일 생계사서 법회 본사·지역국 유대 강화·국민화합 기원

영·호남 방송인 불자 화합법회가 열린다.

KBS 불교연구회(회장 김학선)는 부처님오신날 맞아 10일 하동 생계사에서 영·호남 방송인불자 화합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KBS 본사를 비롯하여 영·호남지역 KBS 부산 대구 창원 진주 포항 광주충국 목포 남원 김제송신소와 민영방송사 불자 방송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지역화합법회는 불자방송인들이 함께 정진하며 단결력을 공고히 하여 불심을 모으겠다는 것. 특히 본

사와 지역국 직원간의 우의와 단합을 다지고 영·호남 연대강화를 통한 국민대화합을 기원하겠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KBS불자회는 3년 전부터 방송인 불자회의 권역별 연합법회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에 불교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원주 치악산 상원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본사와 지역국간 합동법회는 미창립 지역국 창립의 발판이 되고 회원간 유대는 물론 업무의 상호연대 강화

로 이어져 방송국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공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S불교연구회는 현재까지 20개 지역국에 불자회를 창립해 조지를 강화했다. 특히 권역법회에는 지역의 민영방송도 참여하여 전국방송인불교연합회의 단 위조직 결성에도 큰 성과를 거둔 전방이다.

김학선회장은 "이번 행사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되는 국민의 대화합을 이루자는데 있다"며 "지역기반을 탄탄히 하여 방송계뿐 아니라 전국적인 불교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불법 따르는 깨끗한 공직자 서원"

감사원불자회 창립

회원 120명 보살할 다짐

감사원불자회(회장 이금복, 감사원 공보관)는 28일 감사원 신관대의실에서 김동태 감사관 신상우 신동균 감사위원 안병일 사무총장등 차관급 인사 9명등 1백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정신을 실천하고 불자로서 신심을 두렵게 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감사원불자회는 앞으로 매 월 정기법회와 분기별 불우이웃돕기,

사찰순례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법회에서 이금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자회를 창립하는 좋은 시절인연을 만나게돼 기쁘다"며 "회원들에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정신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장인터뷰 4면)

지도법사로 추대된 도문스님(대각사 조실)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나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잠깐이라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불자회 창립준비위는 26일 안산소년원을 방문하고 소년원생들을 위로했다.



한국불교언론인회 창립

전국신문방송 언론인 참가...초대회장 신광식씨

전국의 신문 방송사 언론인 불자들은 신심과 친목을 다지며 한국 불교의 현실직시와 미래를 제시할 한국불교언론인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에 신광식 KBS연구위원을 선출했다. (관련 인터뷰4면)

5월1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린 창립법회는 회칙을 통과시키고, 고문 지도위원을 추대하는 한편 임원을 선출했다. 창립법회에서 일주 중단협의회회장은 법어를 통해 "급변하는 현실은 언론인 불자들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태고, 천태종 총무원장과 진각종총무원장, 국회정책위원장은 각각 축사를 통해 "언론인 불자들의 활약이 불교교단 내외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부회장은 유자효 SBS보도국장, 이계홍 前문화일보편집위원, 강신철 경향신문부국장, 최정희 현대불교신문편집장이 선임됐다.

탐방 광주불교운전자회

친절·봉사 으뜸 '거리의 포교사'

92년 5월 창립...회원 80명 지역행사에 차량지원

"우리 불자들은 아상을 버리고 자기자신을 한단계 낮춰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수지할 수 있어요."

15일 광주 무각사 대웅전에는 60여명의 광주불교운전자회(회장 김용문) 회원들이 모여 지도법사 광민스님(무각사주지)의 법문을 듣고 있다. 법회가 끝나고 윤불회 회원들은 10일 광주불자교사모임이 무등산 일대에서 펼쳐는 환경

정화운동에 참석하여 자원봉사하기로 한 계획을 짜느라 분주하다.

봉사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광주불교운전자회는 지역 내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교통정리를 해주고 차량봉사도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광주를 찾는 불자들을 가장 반갑게 반기는 것은 광주불교운전자회의 회색빛 제복. 유기근 총무가 직접 도안한 회색제복에는 긴자 마크와 불교운전자회 명찰이 선명하다. 불자회회원 80여명 전원은 이 제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



◇광주불교운전자회는 15일 정기법회를 갖고 5월 봉사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런만큼 친절은 두말할 나위없다.

1992년 5월 '달리는 법당, 자비의 봉사자'를 천명하고 창립된 광주불교운전자회는 매일 셋째 수요일 무각사에서 정기법회를 갖는 것을 비롯하여 연 2회 수련대회와 불우시설 방문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불교운전자회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총재스님을 추대키로

하고 광주사원연합회(회장 현지스님)에 천운스님(양림사 조실)을 추대할 상태다.

김용문회장은 "교리공부를 강화하여 불심을 키우는데 주력하겠다"며 "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원효성사 열반 1312주 제향대제

원효스님의 열반 1312주년을 기리는 원효성사 제향대제가 25일 경주 분황사에서 봉행됐다. 원효학회와 원효학연구회가 주최한 이날 대제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분황사주지 종수스님 원효학연구회장 김영태박사 이원익 경주시장 손호익 경주시의회위원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종수스님은 봉황재에서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으로 自是(他非)의 2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화쟁세계를 실현해 나갈것"을 발원했다.



은평사암련 국난극복법회

서울 은평구사원연합회(회장 성운, 삼천사 주지)는 4월30일 수국사에서 봉축기념 국난극복·민생치안과 은평경찰을 위한 오찬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회장 성운, 수국사 주지 자용스님, 김영호 은평경찰서장을 비롯한 불자 경찰공무원 1백여명이 참석. 사원련은 6백여명분의 위문품과 모범경찰자녀들에게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태고종 승정 도봉스님 49재

태고종 승정 도봉스님 4월 49재가 23일 태고종 중정 보성스님, 태고종 승정 만공스님 해경스님과 총무원장 인곡스님, 도봉문도회(회장 정암스님, 前 백련사주지)스님과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 백련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주지 윤경스님은 "스님께서 사바세계로 다시오셔서 중생을 일깨워 주시라"며 "스님이 대중스님들에게 당부한 선, 조사스님과 신도들을 잘 공양하며, 사중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 제1기 명예기자 위촉

현대불교신문 제1기 명예기자위촉식 수여식 및 1차교육이 4월26일 편집국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29명의 1기 명예기자에게 위촉장과 불서 <생활속의 불법수행>을 전달했다. 또 회사소개와 불교계 언론현황, 명예기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명예기자들의 임기는 1년이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A large advertisement for Buddhist organizations and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groups like '대한불교 화엄종', '한국재가불자연합', '한국불교금강선원', '법륜사', '법성사', '보승사', and '법동사회종합복지관'.